광주일보·KBC·한국갤럽 대선 여론조사

孫 22.9% 鄭 17% 李·韓 6.6% 順

학규 동영 해찬 명숙

■범여권 대선후보 선호도

■범여권 대선 후보 선호도

조순형 첫 조사서 6.1%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지난 6월 여론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범여권 후보 선호도 1위를 지켰다. '범여권 대선 후보로 누가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22.9%가 손 전 지사를 꼽았다.

이어 17.0%가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6.6%가 각각 이해찬·한명숙 전 국무총리 6.1%가 조순형 의원, 4.7%가 이인제 의원, 3.5%가 유시민 의원, 2.8%가 추미애 전 의원을 각각 선택했다.

손 전 지사는 남자(29.8%), 30대(30.9%), 대학 재학 이상(27.5%), 화이트칼라(34.1%), 블루칼라(28.3%)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층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정 전 의장은 여자(19.8%), 20대 이하(23.1%), 가정 주부(20.8%)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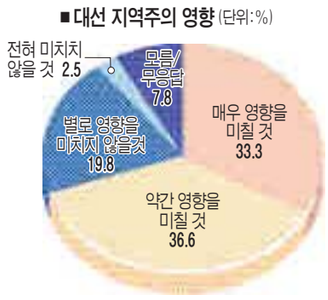
손 전 지사는 지난 6월 지지율 21.7%보다 소폭(1.2%포인트) 올랐으며 지난 6월에도 2위였던 정 전 의장은 이번에 2.6%포인트 상승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6월 6.0%에서 조금 올랐으나 유 의원은 4.7%에서 1.2%포인트 각각 하락해, 대조를 보였다.

이번에 처음 지지도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된 조순형 의원이 6.1%의 지지율을 보였고 이인제 의원이 4.7%, 추미애 전의원이 2.8%로 낮은 지지도를 각각 나타냈다.

광주·전남을 기반으로 일대 반전을 노리고 있는 강운태 전 내무부장관은 1.8%의 미미한 지지도를 기록했고 시민 후보로 주목을 받고 있는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은 0.8%의 지지율에 그쳤다.

■대선 지역주의 영향 (단위:%)



■올 대선에 지역주의 영향

70%가 "영향 미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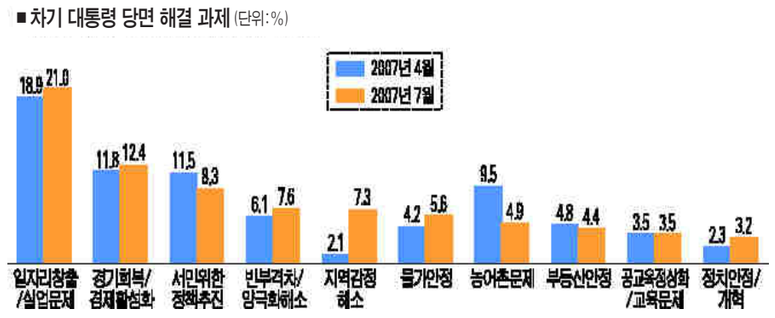
'올 대선에서 지역주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3.3%는 '매우 영향을 미칠 것', 36.6%는 '약간 미칠 것'이라고 각각 답했다. 69.9%의 응답자가 지역주의가 올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비해 전체 응답자의 19.8%는 '별로 미치지 않을 것', 2.5%는 '전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역주의가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응답자는 남자(74.7%), 20대 이하(73.8%), 40대(75.4%), 자영업자(75.8%), 화이트칼라(77.9%), 학생(77.5%)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응답자는 30대(31.1%), 블루칼라(31.9%)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했다.

■차기 대통령 당면 해결 과제 (단위:%)



■차기 대통령 당면 과제

'일자리 창출' 제 1순위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지난 4월 여론조사에 이어 '일자리 창출 및 실업문제'가 또다시 제1순위로 지적됐다. 지난 4월에는 18.9%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소폭 올라 21.0%였다.

다음으로는 '경기회복 및 경제활성화'(12.4%)가 꼽혔다. 역시 지난 4월 여론조사에 이어 또다시 2순위로 지적된 것이다.

이어 서민 정책(8.3%), 빈부 격차 및 사회양극화 해소(7.6%), 지역 차이 및 지역감정 해소(7.3%), 물가 안정(5.6%), 농어촌 문제(4.9%), 부동산 문제(4.4%) 등이 지적됐다.

지난 4월 여론조사에는 농어촌문제가 9.5%로 4번째 중요과제로 선택됐는데 이번에는 7번째로 물러난 것이 관심을 끌었다.

지난 4월 당시에는 한미FTA협상 문제로 농어촌문제가 관심이 초점이 된 상황이었던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 4월 여론조사에서는 2.1% 응답으로 별로 중요시되지 않았던 지역차이 해소가 7.3%로 이번에는 5번째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 것이 주목된다. 이는 대선이 다가오면서 지역차별과 지역감정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진 때문으로 해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孫 '쏠림 현상'…鄭·李 세확산 박차

범여 정치인 대선주자별 '헤쳐 모여' 본격화

범여권 정치인들이 제각기 '기대주'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헤쳐모여'를 시작했다.

아직은 경선구도가 가변적인 탓에 눈치를 보는 부동층이 대다수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손학규-정동영-이해찬 등을 축으로 세력이 재편되는 양상이다.

먼저, 범여권 후보 적합도에서 선두를 달리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 쪽으로 '쏠림현상'이 두드러진다. '손학규 대세론'까지 확산하는 양상이다.

현재 특보단에 들어온 의원은 김부겸·안영근·조정식·정봉주·김동철·한광원 의원 등 9명이지만 내달초 대선출마를 계기로 386 초·재선의원들이 손 전 지사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종석·송영길·김영춘·우상호 의원이 최근 합류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병문·강기정·김진표·이기우·최재성·홍재형·심재덕·최규성·최인기·김효석 의원 등 30여명도 가세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동교동계에 속하는 설훈 전 의원도 최근 캠프에 합류했다. 특히 설 전 의원의 합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의중이 손 전 지사에 실렸다는 설(說)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정동영 전 의장 쪽도 만만치 않은 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 80명에 육박하던 친(親) 정동영계의 위세는 수그러들었지만 '충성도'가 높은 의원 20~30명이 핵심 지지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강창일·김낙순·김춘진·김현미·민병두·박영선·양형일·우윤근·이강래·이은영·장복심·정의용·정청래·채수찬·홍창선 의원 등이 대표적인 친 정동영계다. 여기에 이용희 국회 부의장과 김종인 민주당 의원이 참여하고 있고, 최근에는 김근태 전 의장계로 분류됐던 문학진 의원이 캠프에 힘을 보탰다.

친노진영의 유력주자인 이해찬 전 총리 캠프에는 서갑원·유기홍·한병도·선병렬·양승조·이상민 의원이 매일 오전 정례적으로 캠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홍미영·유승희 의원 등 김근태 전 의장계 의원들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전직각료 중에서는 허성관·오거돈·추병직 전 장관이 캠프에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열린우리당 합당 채비

8월12일 전후 전당대회…신당과 흡수합당 추진

열린우리당은 다음달 12일께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가칭 미래창조대통합민주신당(이하 신당)에 흡수되는 형식의 합당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핵심관계자는 29일 "당초 신당이 중앙당을 창당하는 5일 오전 임시 전대를 열어 신설합당을 결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범여권 상황상 일정을 맞출 수 없다"며 "12일 전후 전대를 열어 합당을 결의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우리당이 임시 전대 일자를 늦춘 것은 범여권의 통합논의가 예상보다 늦어졌기 때문이다. 5일 임시 전대를 개최하려면 전대 일주일 전인 29일까지 전대 소집공고를 해야 하는데 아직 논의의 매듭을 짓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신당 창준위가 지역 시도당 창당대회에 집중하느라 대통합 대상인 우리당, 중도통합민주당과의 통합논의를 추진할 통합추진기구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해 전대 일정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우리당은 신당, 통합민주당과 통합논의를 진행시켜 통합민주당과 같은 날 임시 전대를 각각 개최해 통합작업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당대당 통합은 신설합당이 아닌 흡수합당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합당 방식은 신당과의 시도당 조직개편 등 후속작업이 필요한데다 양당이 대등한 관계에서 합당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도로 우리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협상 파트너인 신당과 통합민주당이 우리당의 계획대로 통합논의에 임할지는 미지수다.

통합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우리당은 친노(親盧)세력이 남고, 나머지는 비례대표 출당 조치와 개별탈당을 통한 신당참여 등 방식으로 갈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